

## 제4실 | 무기와 무구 | 전시해설

### N-139, N-140 향아리 모양 등자

#### N-139, N-140 부속: 허리띠 꾸미개가 부착된 속잎 모양 말띠드리개

등자는 말에 올라탈 때 발을 디디는 말갓춤으로 안장의 양옆에 늘어뜨려 사용합니다. 철제품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옷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허리띠 꾸미개가 부착된 속잎 모양 말띠드리개는 등자와 한 세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### N-133 가래나무 활

가래나무로 만든 활로, 통나무의 껍질을 깎고 전체적으로 옷칠을 하여 완성했습니다. 화살(N-134, N-135, N-136)과 더불어 쇼토쿠 태자가 모노노베 노 모리야와의 전쟁에서 이 활을 사용했다는 전승이 12세기 전반에 이미 성립되었습니다.

### N-134 구멍이 여섯 개 난 우는살

우는살은 화살의 한 종류로, 쏘면 큰 소리를 내며 날아갑니다. 화살 끝에 구멍을 여섯 개 낸 빨로 된 각지와 큰 삼각형 화살촉을 달고 시위에 활을 거는 부분인 오늬는 상아로 만들었습니다. 화살대는 모두 곧은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매우 얇게 옷칠했습니다.

### N-135 화살

화살촉의 날이 무뎍니다. 이타쓰키라고 하는 형식의 화살로 연습 등에 사용했습니다. 끝부분에 지름 1.6cm 정도의 빨로 만든 절긋공이 모양 화살촉을 달았는데 이 화살촉에는 깊은 홈이 파여 있어서 이 홈에 철로 만든 끝 모양의 화살촉을 끼워서 사용했습니다.

### N-136 뽕죽화살

다섯 자루 모두 같은 형태의 작은 삼각형 화살촉을 달았습니다. 화살대의 앞부분과 뒷부분 주변에는 검은 옷을 칠하였고, 소량의 금분을 뿌렸습니다. 또한 화살대의 뒷부분에는 화살깃을 세 개 붙인 흔적이 보입니다.

### N-141 톱

자르는 톱니가 달린 절단용 톱(가로로 자르는 톱, 요코비키)입니다. 두꺼운 톱날로 보았을 때는 실용품인지 의례용인지 분명하지 않지만, 낫(N-142)과 더불어 이러한 종류의 도구로서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보입니다.

### N-142 낫

날의 모양이 초승달 형태인 낫입니다. 호류지 오층탑의 상륜 하부에는 이 유물과 유사한 낫이 피뢰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가 호류지를 건립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.

## **N-137 채색 그림 화살통**

화살의 화살촉을 밑으로 향하게 세워 수납하는 용구입니다. 지금은 심하게 벗겨진 상태이지만 표면에 운간 채색(동일 계통의 색을 옅은 색부터 진한 색 순서로 칠하는 방식)으로 꽃무늬 등을 그린 듯합니다.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화살들(N-134~N-136)을 넣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.